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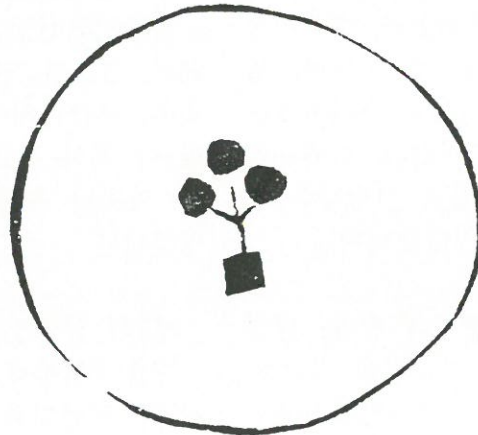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49호(99/1/2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사랑의 열매
마음으로 영감
...



1999. 이철수 판화 달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사랑 발송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998년의 사랑방 10대 뉴스

불심검문 캠페인부터 양지마을까지

1998년, 사랑방에게는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였고 의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랑방의 한 해를 10대 뉴스로 정리했습니다.

불심검문 캠페인-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가장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캠페인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주요 대규모 집회 현장 주변에서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이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대학생 사회에서 이에 대한 호응이 높았고, 사랑방은 5명의 대학생들의 법정소송을 지원했습니다.

양지마을 사건, 인권운동 영역 확장

7월 16일, 충남 연기군에 소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과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송현원에 대한 긴급현장조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이래 최대의 사회복지시설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고, 사랑방은 인권운동의 관심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감옥 설문조사, 『한국 감옥의 현실』 발간

3월부터 10개월간 설문조사작업을 벌였고, 23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국제인권기준과 국내 행형법에 비취 분석한 책을 12월에 발간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송보호감호소 문제의 집요한 문제제기도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임, '인사동' 출범

자원봉사자들의 자체 모임인 '인사동'이 발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인 한 해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동의 주체로 세우고, 이들 스스로 학습과 정보공유, 모임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사랑방의 한 축으로 튼튼히 서게 되었습니다.

'진보적 인권운동론' 제기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서

대표가 발제를 통해 '진보적 인권운동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큰 틀에서 사랑방과 한국 인권운동의 방향을 세웠습니다.

서대표 보석 출감

97년 11월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되었던 서준식 대표가 2월 5일 보석으로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서준식 대표는 이때의 구속으로 KNCC 인권상, 씨네 21 영화상, 휴먼라이츠 인권상 등을 수상하는 상(賞)복을 얻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인권교재 출간 준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인권교육실에서 청소년 인권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최초의 민간단체에 만든 인권교육 전문서가 될 이 책의 원고를 11월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마지막 손질을 거쳐 곧 정식 출간될 예정입니다.

제3회 인권영화제 성료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에서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는 이제까지 열린 인권영화제 중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얼굴 총원

98년에 상근자로 배정내, 이주영씨가 자원봉사와 연수를 마치고 결합하였습니다. 김삼석씨는 연수중 건강상의 문제로 중도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사랑방 상근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 공간 확장

현재 사무실 건물 4층만을 사용하던 데서 5층까지로 확장했습니다. 밀려오는 자원봉사자들과 사건 관계자들로 인해 장소가 너무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사랑방은?

사무국 구조조정, 사회권 개척

올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정세에 조응하여 사랑방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논의과정 끝에 23일 사무국 MT를 거쳐서 사업방향과 계획의 대강을 정리했습니다.

1. 조직 재편 방향

사랑방의 조직을 사무국만의 구조에서 보다 중층적인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유명무실화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재편과 사무국의 조직강화, 자원활동자 조직 '인사동'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조직재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의 운영위원회 폐지, 정책자문위원회로 재편(4월)-정책과 전문적인 기획능력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②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폐지, 후원회로 재편(6월)-대중적인 후원회의 건설로 재정과 운동의 대중화를 꾀합니다.

③ 기획회의의 신설-대표, 사무국장, 편집실장, 총무를 기본으로 구성하여 주요사안과 시급한 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사업의 기획을 담당합니다.

④ 사무국을 사무국장, 1 총무, 4 실(홍보실, 자료실, 교육실, 편집실), 3 위원회(자유권, 사회권, 영화제)로 개편합니다.

2. 사업과 재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활동가

사랑방의 주인인 주체들이 사업과 재정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동비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조정합니다.

① 사무국 상임활동가의 월 활동비는 기본급(35만원)을 지급하고, 총수입에서 사무실 경상비, 비경상비를 제외하고 남은 액수를 비율제로 나눠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이에 따라 사무국의 고정적인 T/O는 폐지되고, 인권운동에 헌신하려는 인력들을 사무국 성원들의 전원일치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③ 활동비가 현실적으로 줄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보장, 적극 권장합니다.

④ 후원회의 조직, 독자확대운동, 별도의 재정수입사업, 프로젝트를 통한 펀딩의 확보 등을 조직하여 활동비 감소분을 보충하도록 합니다. 공동의 재정확보와 공동의 분배를 실현합니다.

3. 사회권 개척, 국보법 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심화,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 완성, 정계 개편 등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권운동의 조건들도 한편으로는 권력이 민간을 포섭하면서 일정 정도의 양보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욱 취약한 인권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의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① 자유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감옥의 인권, 불심검문 반대운동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이 위원회를 서대표가 책임 감독합니다. 정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합니다.

② 사회권위원회-'IMF와 인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반기 동안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초,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9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에 옮겨잡니다. 이 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책임 집니다.

③ 인권교육실-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노력, 공무원 인권교육안의 마련, 청소년 인권 주체들의 훈련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 / 업 / 보 / 고

(98년 12월 셋째주부터 99년 1월 셋째주까지)

'자유북한인'들의 인권침해 고발 이후 북한인권문제와 연결할 생각

지난 15일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는 기자들만 무려 60여명이 몰리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유북한인(탈북자) 인권침해 방지 및 생활 정착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이 약 20명의 '자유북한인'과 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민변, 민가협 관계자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사랑방을 찾아온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자유북한인협회) 회장 한창권씨 등으로부터 그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가해진 고문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사랑방은 민변 등에 긴급 간담회를 요청했고, 17일 민변 사무실에서 자유북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기부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3일 안기부의 방해공작 속에서도 50여명의 자유북한인들의 참가, 그들의 단체를 구성하였지만, 안기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단체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빨리 하지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월 20일 mbc가 이 문제를 취재, 뉴스 시간에 보도했고, 이에 따라 다시 연초로 활동은 연기되었습니다.

계속된 안기부의 방해공작

1월 9일 민변에서 10명의 자유북한인들을 차병직, 임영화 변호사가 면담하여 기초조사 작업을 벌인 뒤 고소장 작성이 이뤄지지 않

은 채 급하게 15일 그간의 면담과 조사작업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정리하여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1월 9일 자유북한인협회는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반대파에 의해 장악되다시피했고, 안기부를 두려워하는 회원들의 탈퇴가 잇따르자 한창권씨가 긴급하게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안기부는 서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와 이들과의 접촉을 막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안기부는 '대성공사'에서의 인권침해와 그 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이들의 형편을 이용해 경제적인 회유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분열된 자유북한인협회의 한편은 안기부의 요구대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경제적인 혜택을 요구하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공사 인권침해 고소·고발 준비

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탈북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고문, 가혹행위 중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탈북 주민에 대한 조사방식의 개선 △탈북 주민 보호·지원 업무에 있어서 안기부의 간여 최소화 △탈북주민의 '자유인' 신분 보장 △탈북주민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탈북주민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탈북주민들의 법정투쟁을 지원하고,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적십자사 총재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준비를 민변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방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통해 북한인권현실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국보법 폐지 위해 다각적인 계획 고민

올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폐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사랑방은 이에 미리부터 대응할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지난 해부터 함께 하고 있는 국제캠페인 팀과는 2월 초 공동의 사업계획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전국연합 제안으로 구성되는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논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은 지난 해부터 진행된 국보법 대중용 책자와 7조 자료집의 발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국보법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 월간 소식지의 발간 등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양사업을 전개하고, 이들을 국보법 철폐 실천단으로 묶어 활동주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 국보법 개폐 논의의 문제는 지난 해 준법서약서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국보법의 '민주질서수호법'으로의 대체를 정부측에서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보법 철폐 운동을 하는 단위들과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이를 필요도 제기됩니다. 이에 사랑방은 대체입법 반대, 국보법 전면 철폐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전면 철폐가 어려울 경우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랑방도 참가하고 있는 국보법 연대회의에서는 2월 6일의 인권문화제, 김대중 정부하의 국보법 적용 토론회, 김정권 출범 1주년 맞이 공동성명등을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난해 12월 21일 『한국 감옥의 현실』을 발간한 행형연구모임은 14일 박찬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박변호사가 제출한 '한국행형법연구회'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랑방 행형팀은 구체적인 교도소 현실을 파악하고, 교도소내에서 이뤄지는 인

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옥에 관한 핸드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mbc PD 수첩, 한겨레신문에 서는 의정부와 대전교도소를 취재하여 감옥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고, 이에 사랑방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출소자들을 연결하여 인터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은 19일부터 3회에 걸쳐서 보도하였고, PD수첩은 26일 이 결과를 방영합니다. 또, 2월초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교도소 실태를 점검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 감옥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사랑방에게 감옥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바 있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Peace Child International이 주도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의 참여하에 제작, 유엔에 헌정된 어린이 인권교재 『Stand up for Your Rights』에 인권교육실에 제출한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인권교육실은 이 책자를 번역 출판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 지난 해 11월 출판사에 넘긴 청소년 인권교재 『인권교육의 길잡이』가 2월초까지는 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내용의 수정작업을 다시 한번 가졌으며, 이에 출판사에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편집실장 염규홍씨가 운영하는 도서출판 사람생각의 사정으로 책 출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가인권위 공추위 집행위원회가 1월 5일 열려서 2월말까지 대중용 자료집과 정치권 로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기 쉽게 해설한 소책자가 준비중에 있으며, 이 소책자가 발간

되는 대로 대중홍보작업과 함께 집중적인 정치권 로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권교육실은 PC 통신과 인터넷 등에 대학생 새내기 배움터 등에서 인권교육을 신청받는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새내기들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 교육에 여러 단체들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운동 간부들이 미리 공부하고 새내기를 가르치겠다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총무는 사랑방 사무국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 만든 예쁜 카드를 연하장으로 제작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대체로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준비가 늦어져 너무 늦게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를 준비중입니다. 98년 하반기의 인권하루소식을 합본한 이 책자에는 김대중 정권 1년을 평가한 머리글도 실리게 됩니다. 2월중 발간하여 우송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권홍보실과 교육실은 지난 해 하루소식에 연재되었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획특집 기사를 공식 출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쳐서 삽화 등을 넣은 깔끔한 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 김대중 정부 최초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사랑방은 영남위원회 전국대책회의와 공동으로 항의성명으로 발표하고, 19일

에는 울산에서 올라온 울산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였고, 대법원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 최근 영국에서 진행중인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의 재심을 앞두고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15일 낮 1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여러 단체들과 공동으로 가졌습니다. 영국 대법원의 재심은 진행중입니다.

□ 자원활동자 모임인 '인사동'은 연초에 대표를 김경태씨로 바꾸고, 기본 인권교육을 인권교육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은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판단 아래 자원활동자로 스스로 부르기로 하고, 각각의 사업에 배치하였습니다. 인사동은 PC 통신과 인터넷에 하루소식 유료구독과 자활 활동 모집 등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도 1월 말까지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자들의 사업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권-강미주, 노진오, 정재욱/사회권-김경태, 이세형, 이미애, 손애라/교육실-고근예(자료실 겸임중)/자료실- 고3 학생들 3명/하루소식-김정연, 양숙희/미확정-김현정

□ 오는 2월 26,7일 이틀 동안 한국정부와 월드뱅크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제학술회의에 여러 단체들과 함께 김대중 정부의 정책 실패 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나 공동 토론회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치 개혁이 사회권의 급격한 후퇴로 이어지고 있음을 폭로할 예정입니다.

□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회권 운동 영역 개척을 위해서 사회권위원회는 함께 보

고서를 작성할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말부터 진행되는 IMF 경제신탁통치 이후의 사회권 후퇴 현상에 대해 사회권이라는 시각으로 정리, 분석하고, 이후 한국사회에서 사회권운동의 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함께 할 사람들은 박래군 사무국장이나 이주영씨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급보> 김수경씨가 25일 득녀했습니다. 김수경씨는 2월초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출산이 급히 진행돼 한양대 구리병원에 입원하여 출산하게 되었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답니다. 다 같이 축하합시다.

△ 서준식 대표는 20일 캐나다 대사관저에서 오찬모임, 27일 프랑스 대사관 초청 오찬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하였습니다. 한편,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한 서대표 재판이 재개되어 진행중입니다. 19일의 증인신문에 이어 2월 2일에는 학교측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재판은 서부지원 407호에서 2월2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기자 이창조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학보사 기자 10여명을 상대로 인권의 기본개념과 인권기사 취재 문제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 류은숙 인권교육실장이 지난 7일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인권연수프로그램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류은숙씨는 인권교육(국가, 학교, 민간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편당 확보 방법 등을 배우고 오는 5월 9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 류씨는 출국 전인 4일 참여연대 아카데미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 지난해 12월 23일, 사무실 인근의 '술익는 마을'이란 술집에서 98년 사랑방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송년회에는 강경선, 백승현, 김동한 운영위원, 차병직 변호사, 권낙기, 이두균 선생님 등 장기수 선생님, 윤혜

경, 김거성 자문위원 등과 사랑방 사무국 활동가와 자원활동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또, 사회진보연대와 민교협 교수님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 지난 해 자원봉사자로 결합하였던 유해정, 김정희씨가 사랑방 상임활동가로 근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3개월의 연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유해정씨는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김정희씨는 자유권위원회 담당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연수는 사랑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인권기본교육, 인권활동가 기본훈련 등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98년 국정감사자료집 주문판매 중 전질, 각 위원회별 주문 가능합니다

98년 국정감사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훨씬 더 풍부하고 깔끔하게 엮었습니다. 50년만의 정권 교체 이후의 인권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부 자료를 교육위원회 등 7개 주요 상임위원회별로 엮었습니다. 1질 25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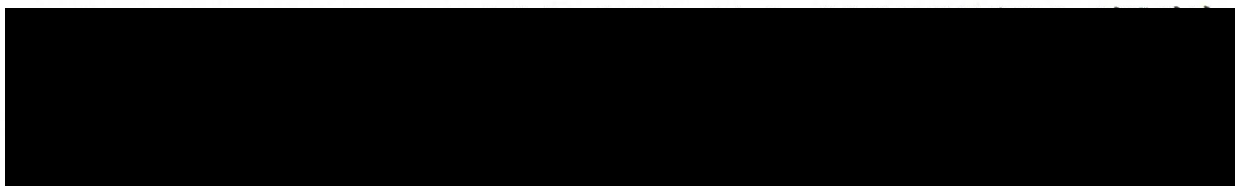
환경노동위원회 I	총 708쪽	45,000원
환경노동위원회 II	총 702쪽	45,000원
환경노동위원회 III	총 412쪽	25,000원
환경노동위원회 IV	총 537쪽	30,000원
법제사법위원회 I	총 452쪽	25,000원
법제사법위원회 II	총 348쪽	20,000원
교육위원회	총 132쪽	10,000원
외무통일위원회	총 193쪽	12,000원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총 253쪽	15,000원
행정자치위원회	총 537쪽	30,000원
보건복지위원회	총 662쪽	40,000원

98년 12월 재정보고
(98년 12월 16일 - 99년 1월 15일)

전기이월: - 5,387,806원

수 입		지 출	
회비	3,514,689	활동비	3,915,000
구독료	2,978,800	발송비	491,720
자료 복사·판매	588,300	사무비품비	231,300
강연·교육·원고	248,000	사무실유지비	1,120,830
후원금	5,568,663	간행물구독료	74,500
기타	242,329	통신·전화비	1,223,510
		사무기기	359,500
		복사비	450,000
		출장비	30,000
		기타	393,000
		차입금 상환	4,300,000
수입총액:	13,140,781원	지출총액:	12,589,360원
최종결산:	- 4,836,385원		

<12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 ▣ [Redacted]께서 1,200,000원을 [Redacted]께서 177,089원을 보내주셨습니다.
- ▣ 지난 해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에 오신 [Redacted]님께서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독일에 거주하시는 [Redacted]을 「네 이름에 침을 뱉으마」의 저자 [Redacted]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 [Redacted]씨께서 '99 인권운동사랑방 신년엽서 인쇄비를 후원해주셨습니다.
- ▣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소중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